

문학

문학정신의 본령으로 귀환할 수 있길

방민호

문학평론가 · 강원대 강사

지난 한해는 일종의 휴지기과 같아서 새로운 문학정신의 출현을 예비하고 있던 게 아닐까. 90년대 전반을 풍미했던 포스트모더니즘론·대중문학론 등이 상당히 퇴조하면서 문학은 그 충격에서 벗어나 시각을 조정하는 상태에 들어섰음을 예고한다.

96년은 문학의 해였다. 하지만 정작 몇몇 커다란 행사를 제외하고는 문학의 가치와 역할을 되새기는 데는 아쉬움이 많았다. 문학이라는 것이 애당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한다 해서 융성하거나 발전하는 것이 아닌 만큼, 96년 한해 동안 문학인들은 빈약한 창작적 산물들에 비해 유난히 커보이는 행사들로 인해 더 많은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새해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대통령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다가온다 할 때, 문학 혹은 문학인들이 그같은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하고 스스로를 어떻게 위치지을 수 있는가가 국민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나간 한 시대 전체를 정치 속에서 보냈던 우리들인 만큼, 다가오는 정치의 계절은 무엇인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스스로의 독자성을 지키면서도 시대로부터 소외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한다.

이같은 우려를 가중시키는 것은 지난해 하반기 문학계를 지배했던 이른바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우여곡절들이다. 국가권력에 의해 문학인의 작품이 그토록 쉽게, 그토록 자의적으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곤 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적 풍토임을 장정일의 작품과 열음사의 번역물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은 일깨워주었다. 동시에 그것은 황석영이나 김하기 등 역시 문학인들의 '불온한'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우리의 정치적 풍토는 매카시즘·레드 콤플렉스 측면에서

는 아직도 동토(凍土)를 닮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사건들은 모두 문학인의 정신·작가의식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또한 반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무엇보다 문학인은 자신의 실천 행위·창작적 행위가 매우 민감한 사회적 행위에 속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했다. 이른바 작가의 대사회적 책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며, 사법적 권력과 문학 독자 일반으로부터도 독립된 작가적 책임의식이라는 것이 엄존하는 것이다. 새해는 문학 및 문학인들에 있어 이같은 인식이 더 탄탄해지고, 그 결과 더 견고한 문학정신이 지배하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문학 및 문학인의 가치와 힘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결국 심오한 문학정신, 그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또한 지난 한해가 일종의 휴지기 와도 같아서 새로운 문학정신의 출현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해보기도 한다. 먼저 90년대 전반을 풍미했던 포스트모더니즘론·대중문학론 등이 상당히 퇴조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같은 담론들의 유행이 90년이 준 충격의 한 양상이라 할 때, 그 퇴조는 이제 우리 문학과 문학인들이 충격의 상태에서 벗어나 시각을 조정하는 상태에 들어섰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다음으로 민족문학론의 적실성 여부를 둘러싼 논의들이 간헐적으로 시도되는 가운데 여성주의·생태학적 세계관 등의 새로운 담론들이 활성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이같은 논의들 속에는 일방 청산적인 측면 또한 없지 않다. 그

러나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해간다는 점에서 보면 이같은 전통은 어쩌면 필수적인 것이다. 새해에는 이같은 담론들이 구체적인 문학적 창조행위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새해에는 지난해에도 드문드문 선을 보인 바 있는 나와 같은 세대인 64·65·66년생 작가들이 뚜렷한 활동을 벌일 것이다. 물론 일찍이 문학활동을 해온 같은 세대의 소설가·시인들이 없지 않으나, 이들이 84년의 이른바 자율화 국면과 87년 6월 항쟁, 그리고 90년의 이념적 격변기에 20대 전체를 고스란히 바쳤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90년 직후 '너무 일찍 나온' 문학세대와는 뭔가 다를 것이라고 나는 기대한다.

윤대녕과 신경숙의 해였다고 할 수 있는 96년. 그러나 지난해는 소설보다는 시가 더 돋보였다고 생각된다. 소설비평으로 이 짧은 문학적 이력을 시작한 나로서는 이같은 소설의 '불모적' 상태가 상당히 고통스럽기조차 하다. 무엇이 그같은 상황을 초래했는지에 대해서는 더 찬찬히 생각해봐야겠지만, 소설이란 누가 뭐라 해도 세상에 대해 아는 자의 이야기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또 하나 가능한 소설의 방식이 있다면 자신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다. 만약 작가가 세상도 모르고 다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을 알 뿐이라면 독자들은 그의 이야기에 흥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97년이 좀더 소설적인 작가들이 뚜렷하게 부각되는, 그들의 문학정신·작가의식에 독자와 평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

〈謹賀新年〉

아름답고 뜻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7년 새해 아침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朴忠一
전무이사 吳世益

〈謹賀新年〉

한국 출판의 세계화를 위해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1997년 새해 아침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羅春浩
사무국장 鄭鍾眞

〈謹賀新年〉

독서새물결운동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어 우리 국민 모두가
책을 가까이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1997년 새해 아침

독서새물결운동추진위원회
위원장 鄭元植
집행위원장 羅春浩